

서호인의 '소설처럼'



지난하고 비밀스러운 자기 자신 되기

-김병윤, '아는 사람은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

코로나19를 두고 방역 당국은 이러한 평가를 했다.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문장 그대로 이 전염병의 힘은 막강하여 30만 명의 희생자를 냈고, 의료 체계는 물론 세계 경제 전반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래방이나 클럽에 갔을 것이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겠으나, 결과는 그 마음의 허술함을 배신하곤 한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의 유행은 다행히 대구 신천지나 구로 콜센터에서의 전염에 비해 그 강도가 달랐다. 아마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바이러스를 멀리하는 생활 습관이 자리 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인종, 빈부와 성적 지향을 가리지 않는다. 그것을 가르고 차별하는 것은 인간이다. 모두가 힘들 때 클럽에 간 행위는 마땅치 않으나, 지탄받아야 할 행위이지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수자의 존재가 필요에 따라 지워지고 때로 부각되는 것을 자주 봐 왔다.

필모그래피의 빈 곳은 그가 그토록 바라던 '자신-되기'의 지난하고 비밀스러운 과정이다. 때로 어떤 이의 과정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고는 한다. 공상표, 아니 강은성처럼.

5월 연휴를 앞두고 10명 이하로 떨어진 하루 확진자 숫자에 조금 들뜬 것도 사실이다. 마침 정부도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를 발표했다. 이대로라면 바이러스는 종식되고 잃었던 우리의 일상도 되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우리는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이다.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조금씩은 방심했는지도 모르겠다.

이태원발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낙인찍기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방역과는 상관없이 해당 클럽 이용객의 성적 지향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고, 이는 K-방역에 자라하는 '추적, 검진, 격리'의 모델에 큰 방해를 되었다.

시인 작가 김병윤의 첫 장편소설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는 '아웃팅'(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소수자의 정체성이 알려지는 것)의 두려움과 '커밍아웃'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유명 배우의 이야기이다. 어느덧 한국문학에서의 '위어 서사'는 더 이상 그 모티브만으로는 주목받기 어려워졌다. 이 소설의 미덕은 그저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자기 고백적 서술이 아닌 성공적인 캐릭터 형상화를 통해 펼쳐 보였다는 데 있다.

강은성의 연대는 사후적으로 일어난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커밍아웃이 그 용기를 북돋는다. 또한 그만큼 사랑하던 사람을 잃고 나서야 힘을 낼 수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 과연 강은성은 배우 공상표로서 커리어를 이어 나갈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이 된 이후에도 그에게 사람들이 손을 내밀까. 그리 되길 애써 바랄 뿐이다. <시인>

의료칼럼

영상 기술과 치과 진료



김진수 조선대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 교수

심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 후에 나타나는 가장 많은 부작용은 신경을 건드려 발생하는 감각 이상이 대부분이다. 턱뼈를 벗어나 임플란트가 심어지거나 위쪽에 있는 상악동이라는 공간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형태만을 보여줄 뿐,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필요한 입체적인 형태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입체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CT 영상상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여출 수 있는 진단 영상이 필요하다.

우리는 일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정보 통신 기술(ICT)의 융합으로 4차 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기술을 의료 분야에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 계획을 세우고 수술을 할 때 턱뼈와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진단 영상(X선 사진 또는 방사선 영상)을 이용해야 한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진단 영상은 입안에 필름이나 센서를 넣고 촬영하는 구내 방사선 영상, 위아래 턱뼈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위아래 턱뼈와 주위 해부학적 구조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CT(전산화 단층 영상)나 콘빔 CT 등을 이용하고 있다.

CT 영상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진단 영상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해부학적 구조를 보여주며, 유일하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해부학적 구조의 입체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조선대 치과병원은 2005년 치과대학 병원 최초로 전자 의무 기록(EMR), 의료 영상 전달 시스템(PACS)을 동시에 설치하여 치과 진료에 전산 시스템을 이용했고 당시에 최고 사양이었던 일본 히타치사의 콘빔 CT를 설치하여 구장 질환의 진단, 교정 진단, 악교정 수술,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질이 좋은 진단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상실된 치아를 수복하기 위해서는 보철 치료를 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임플란트를 이용해 보철 치료를 하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턱뼈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야 하고, 주위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의 위치와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내 방사선 영상이나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은 치과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진단 영상으로 치아와 그 주위 해부학적 구조를 보여 주어 치료와 치료에 필요한 정보들을 준다. 그렇지만 평면적인

치과에서는 일반 CT보다는 치과용 CT라고도 하는 콘빔 CT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콘빔 CT는 일반 CT 보다 X선 노출량을 적게는 10분의 1에서 많게는 10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으며, 해상도가 뛰어나 치과 진료에 적합하다.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콘빔 CT를 촬영해 얻은 진단 영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임플란트 수술을 연습하거나 보철물을 제작해 볼 수 있고, 수술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수술용 가이드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해부학적 구조를 보

기고

다시 찾아온 5월에 부처



노영기 조선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 뒤로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며 5·18 관련 자료와 사람들을 보고 만났다. 그리고 다시 놀랐다. '설마' 했던 노래의 가사가 사실(事實)이며, 사실(史實)이어서다.

도 모른 채 희생됐다. 희생자들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임산부, 50대 엄마, 청년 등 다양했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이 그와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5월 22일 광주시 외곽을 둘러싼 군의 봉쇄선은 '살과 죽음의 경계'가 되어 광주를 드나드는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그 억울한 죽음마저 왜곡했다. 노랫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현실은 오히려 더 처참하고 잔혹했다.

지도 않았다. 공권력에 가로 막힌 망월동에 찾아가고 살아남은 부끄러움을 안고서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오월 영령들이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고. 쉽지 않은, 어쩌면 또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싸움임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국가 폭력에 대항하며 함께 어깨를 걸고 싸웠듯이 그날의 경험과 기억을 잊지 않았다. 마침내 그날 '국민의 군대'를 광주로 보냈던 자들에게 죄를 묻고 처벌했다. 그러나 이내 풀려난 자들은 40년 전의 거짓을 확대 재생하고 있다. 선부론 옹서와 화해는 과거를 왜곡할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왜곡한다.

해마다 5월이 찾아오면 광주·전남은 몹시 아프다. 그날의 기억, 쓰러져 간 오월 영령들, 계속되는 왜곡과 도발에 더욱 아프다. 사람으로 치면 불꽃(不惑)이 되어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나이임에도 그렇지 못하다.

'오월의 노래'를 들으며 들었던 또 다른 의문은 '그럼에도'였다. 시민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에 거의 맨손으로 맞서고 총 쏘는 군대에 맞서 총을 들었다. 어쩌면 예고된 패배의 순간에도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다. 정부, 정확히 신군부는 그들을 '폭도'라며 의롭고 외로웠던 그날들의 항쟁을 '폭동'과 '내란'으로 각색해갔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실행됐고, 광주의 시민들은 '폭도'로 매도됐다. 5월 27일 새벽, 찢어 드는 듯 계속되는 총소리를 들으며 광주 시민들은 피울음을 삼켜야 했다.

어쩌면, 이 땅에서 다시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좌절하지도 무릎 꿇

40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 5·18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그날의 연대의 기억을 떠올린다. 코로나19로 대구가 어려워졌을 때 빗고들은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1980년 5월의 또 다른 모습이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5월의 정신이다. 주먹방을 나누고 피를 뱉으며 이웃과 함께 했다. 여러모로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사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다시 그날의 소중함을 간직한 채 새로운 40년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올해 처음으로 세계기록유산이 광주를 떠나 서울로 갔다. 5월 13일부터 광화문 앞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5·18 40주년을 기리는 특별전 '오월 그날 다시 오면'이 열리고 있다. 그 제목에 눈이 간다. 반인권인 '오월의 노래 2'의 후렴구이다. 그 노래는 '꽃잎처럼 금남로 뿌려진 너의 붉은 피'로 시작한다.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놀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아이 설마'했다. '국민의 군대'가 국민들을 상대로 어찌 그런 짓을

社說

가동 중단 3년 한빛원전 과연 안전한가

영광 한빛원전은 부실시공의 대명사처럼 여겨진다. 모두 6기 중 절반인 3기가 부실시공으로 인해 가동 중단 상태이거나 공극이 발견돼 예방 정비를 받고 있으며 그걸 만다.

본적인 처방을 내놓기보다는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만 골몰하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현재 한빛 3·4호기에 대한 구조 건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공극이나 철근 노출 등 현재 상태의 구조물이 설계기준을 만족하는지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 가동을 중단한 이후 3년째, 한빛 3호기는 2018년 5월 이후 2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다. 3·4호기의 격납건물에서 대형 공극(구멍)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공극만 264개로 전국 원전에서 발견된 공극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밀그림이나온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빛 3호기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될 국내 11기의 원전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다. 정밀 조사를 거쳐야겠지만 만약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원전의 격납건물 두께는 1m20cm-1m60cm인데 4호기에선 깊이가 1m57cm에 달하는 공극도 발견됐다. 최근에는 한빛 5호기의 원자로 헤드에서 미세 균열 등이 발견돼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이 예방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 도내 공공시설 내진을 최하위라니

지난 4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해남에서 최대 규모 3.1에 이르는 지진이 70여 차례나 발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처럼 최근 전남 지역에서도 지진 발생이 늘고 있지만 도내 공공시설물의 내진(耐震) 확보 비율은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17건이나 발생하는 등 전남에서도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평소 별 이상이 없었던 해남에서 지진이 보름간의 짧은 기간 동안 74차례나 집중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일의 의원(해남)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남 지역 공공시설물 2501곳 중 내진 확보 건물은 36.9%(924곳)에 불과했다. 공공시설 세 곳 중 한 곳 정도만 내진 설계 기준을 확보한 것이다. 이 같은 전남 지역의 낮은 내진율은 전국 17개 시도 평균 58.2%에 비해 훨씬 못 미치며, 강원(34.1%)과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88.7%로 가장 높았고 광주 68.1%가 내진 확보 건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그제 도정 질의에서 "전남 지역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영광 한빛원전과 영산강 하굿둑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지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내진율이 낮은 이유로 상당수 공공건물이 내진 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점을 들고 있지만 이런 상황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10년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신안에서 30건, 여수에서도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전남도는 전남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 더불어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방재 훈련 등 지자체 차원의 지진 대응 체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잔잔한 기타 연주에 맞춰 한 여자가 노래 부른다. 베네수엘라 가수 솔레다드 브라다다. 내게는 낯선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사령관이며 영원하라'(Hasta Siempre Comandante). 가사를 모르고 들어도 애조 띤 선율과 맑은 목소리가 마음에 와닿는 이 노래는 가사 속에 등장하는 한 단어 덕분에 '잊히지 않는 곡'이 됐다. 바로 '체 게바라'.

다. 갤러리 '예술공간 집'에서 열리고 있는 '강연국의 하늘과 땅 사이-5' (24일까지)전이 기억하는 '그들'은 어렵하다. 그해 5월 27일 YWCA를 사수했던 어느 시민군의 모습은 철모 가득 고인 붉은 피와 맥다 남은 빵 한 조각으로 기억됐다. 항쟁에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울분을 토하고 분노하던 당시 한 사내의 모습은 '젊은이'라는 작품으로 기억됐다.

'체 게바라'는 '서른아홉'로 불리기도 하는 이 노래는 쿠바 음악인 카를로스 푸에블라가 작곡했다. 사르트르가 '20세기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 칭했던 체 게바라는 서른아홉의 나이에 볼리비아에서 총살당했다. 이후 이 노래는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노래가 되어 존 바에즈 등 많은 가수들이 불렀다. 번역된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 "우리의 지도자 체 게바라여!/ 여기 당신의 존재가 갖는 선명하고 깊은 투명함이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 열린 5·18 40주년 기념식 헌정 공연 '내 정은 청산이요'의 애도 역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아카데미 수상작 영화 '기생충'의 음악을 맡은 정재일 음악감독과 장민

5·18 40주년. '선명하고 깊은 투명함으로 남아 있는 이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음악으로, 그림으로, 연극으로, 책으로 그들을 기억한

승 영화감독이 함께 만든 작품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과 '육자배기' '찢김굿' 그리고 '뱀' 등으로 구성된 음악과 옛 국군광주병영, 옛 광주교도소 등 항쟁의 현장들을 담아 마치 한 편의 현대미술 작품처럼 구성됐다. 청와대 홈페이지와 작별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는 이 작품은 27일 하루(오전 11시, 오후 3시 20분, 오후 7시 20분) 광주극장에서 무료 관람할 수 있다. /김미은 문화부장mekim@

Table with 2 columns: English/Chinese text and Korean text. Include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header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